

한국의 라틴아메리카인

Latin American People in Korea



멀고도 가까운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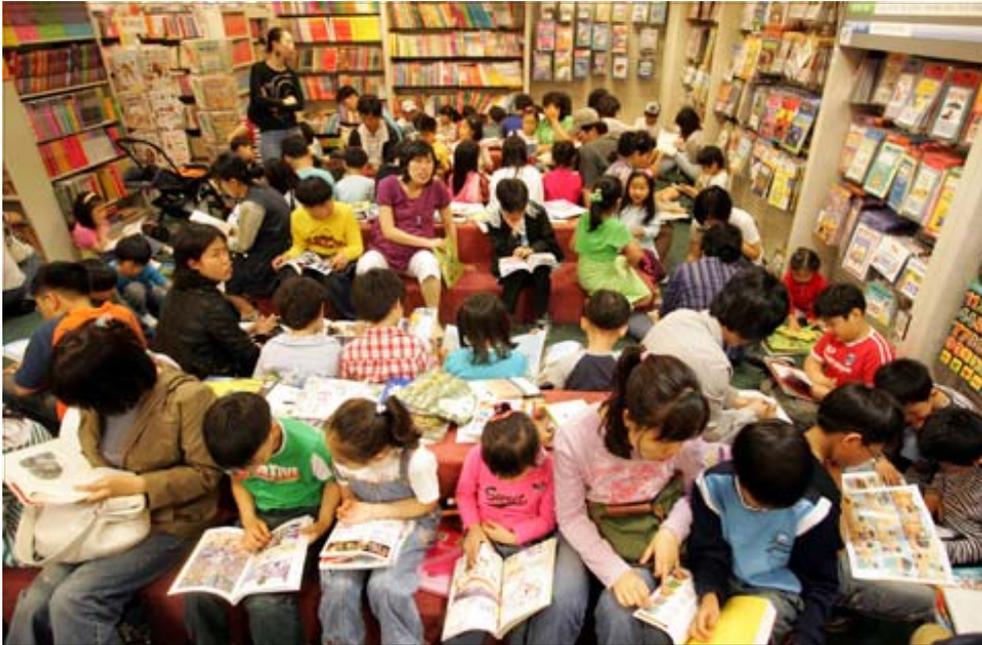
하이메 아길로 파스트라나¹⁾

나는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이곳에 뭔가 아주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2009년 8월, 인천공항에 내릴 때부터 이 나라에서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하리라고 직감했다.

한국에 대한 첫 인상으로는 이 나라가 외양을 잘 가꾸고 모든 걸 보여주는 문화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공항 역시 모든 게 잘 갖춰져 있었다.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제 자리에 깨끗하게 손질돼 있고, 근무자들 역시 주어진 업무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거리마다 한국을 알리는 눈에 띄는 홍보물 하며, 국경일에는 가로등마다 국기가 게양돼 있었다. 사람들도 시시때때로 알맞은 옷을 잘 갖춰 입는다. 한 가지 예로, 산에 가면 산 밑에서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도처에서 등산복을 잘 차려입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 등산모에다 선글라스, 재킷, 우비, 장갑, 등산바지, 등산화는 물론, 선크림을 바르고, 기타 필요한 물품을 넣은 등산배낭 차림의 사람들을 본다. 이런 모습은 자전거나 테니스 등 다른 스포츠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다.

꼭 공항 말고도 때로 한국의 전통 복장인 한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기

1) 이 글의 필자 국적은 스페인이지만 라틴아메리카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며, 문화도 유사하므로 여기에 소개한다.



휴일의 서울시내 대형서점 아동코너

도 한다. 이방에서 온 어느 스페인 사람의 눈에는 매우 아름답고 화려한 의상이 아닐 수 없다.

만일 당신이 한국 사람과 잠시 말을 나누게 된다면, 이들의 조국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금세 알게 될 것이다. 대화를 나누기가 무섭게 그들의 조국과 전통과 역사와 음식, 산 등등 온갖 것에 대한 애정이 그 속에 나타난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이들만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 전통은 단지 낡고 고리타분한 관습으로 가득 찬 짐 꾸러미 같은 게 아니라, 마치 우리의 조상이 남긴 지혜서와도 같이 많은 세대를 거쳐 오면서 축적돼온 지혜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의 원천은 바로 교육에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처음으로 커다란 문화충격을 느꼈던 것은 대전에서의 일이다. 열 두서너 살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 공공도서관의 바닥에 앉아 독서 삼매경에 빠져 한꺼번에 여러 권의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를 얼른 끝내고 다른 책을 또 다시 끝장내려는 듯 감당하기도 힘들만큼 많은 책을 싸놓고



한국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의 진풍경

씨름하고 있었다. 고백하건대 그때 난 정말 이 모습에 충격을 받고 한국의 젊은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열망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 또래의 스페인 아이들에게서는 오로지 사탕이나 나눠먹고 있는 모습을 볼 뿐이었다. “음악이 땀수를 길들인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곳 한국에서는 “책이 아이를 길들인다”가 제격인 것 같다. 그런데 또 다른 장면이 내 눈에 들어왔다. 아이들이 계속 집에서 책을 볼 수 있게끔 엄마들이 도서관에서 부지런히 책을 뒤지는 모습이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교육열을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의 공식적인 대학입시시험인 ‘수능’은 스페인의 대학진학시험인 셀렉티비다드(Selectividad)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곳의 모든 젊은이의 마지막 관문이다. 이 날의 에피소드에 대해 잠시 몇 가지 소개할까 한다. 수능 당일엔 모든 도시가 마비가 될 정도다. 이 날엔 항공기도 도시 상공을 비행할 수 없다고 들었다. 회사도 수험생들이 시험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늦게 문을 연다고 한다. 혹이나 수험생이 늦게 도착할 것 같으면

제 시간을 도착할 수 있도록 경찰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수험생들은 이 날을 위해 지난 3년 동안을 준비하는데, 고교 마지막 3학년 때는 공부 외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다른 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에서도 역시 학생들은 오직 시험에 전념하기 위해 핸드폰 사용도 금할 정도다.

한국사회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외국어 학습에 대한 높은 관심이다. 내가 한국에서 지내던 첫날부터 내 시선을 끈 게 하나 있다면 이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영어를 공부한다는 것이다. 정말 모든 사람이! 영어 공부, 이것은 어쩌면 한국인들의 영원한 숙제인지도 모른다. 심지어는 어린 꼬맹이조차 길에서 만나면 “Hi”, “Hello”하고 내게 인사를 건넨다. 한번은 서울의 전철에서 어떤 사람이 대뜸 영어문장이 맞는지 어떤지 내게 묻는 것이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당연히 난 한국어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그때는 영어로 물어봐야 했고, 만나는 사람 상당수가 거의 뛰어가다시피 나를 피하곤 했다. 어떤 이는 바쁘다는 구실로 서둘러 지나쳤다. 세월이 흘러 내가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자 이전 길거리에서 한국어로도 질문할 수 있게 됐다. 그럴 때면 사람들이 내게 자주 영어로 대답해주기도 했다. 도대체 내가 문제인지 의아해하기도 했고, 한편 내 한국어가 서툴러서 그러는지 사람들이 서로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영어로 말하곤 했다. 그런데 얼마 전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줬다. “네가 길에서 영어로 말을 걸면 대답하지 않고 피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국어로 말을 걸면 영어로 대답할 것이다”라고.

단지 영어만이 아니다.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고, 특히 내가 볼 때 스페인어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 소재 세르반테스센터(Aula Cervantes)가 주관하는 스페인어자격시험(DELE) 시험장에서 한 여학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 알레한드로 산스에게 카드를 보내기 위해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 누구나가 좋게 여기는 한 가지는 일상생활에



한국의 교육열을 풍자한 심슨가족

필요한 실용적인 물건이 엄청 많다는 사실이다.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필요한 물품은 일 년 내내 24시간 영업을 하는 수많은 셀프 서비스 가게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매우 유용한 것 하나는 소위 T-머니라고 부르는 교통카드인데, 카드와 현금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모든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다. 이 카드 하나로 다른 티켓을 구입할 필요 없이 전철과 버스를 환승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와도 연계할 수 있고, 한 달간 사용한 모든 교통비를 월 1회 지불하면 된다. 한국에서 신용카드 사용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일반화돼 있다. 거의 모든 곳에서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카드로 현금을 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서울의 전철이 얼마나 정확하게 운행되는

지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리고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도 매우 자주 운행한다. 단지 이것만이 아니다! 난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과 대전에 물건을 놓고 내린 적이 있었다. 하나는 백팩이었고, 또 하나는 핸드폰이었다. 백팩을 분실하고 나서 친구에게 ‘백팩’과 ‘분실’을 한국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묻고는 내가 내렸던 정거장으로 돌아가서 영어를 좀 섞어가면서 마음 조려 설명했다. 근데 반시간쯤 지났을까 돌아오는 버스에 내 가방이 있었다. 다른 한번은 핸드폰을 놓고 내렸는데, 두 핵심 단어랄 것도 없이 한국어를 좀 알고 나니 내 사정을 설명하는 게 한결 수월해졌음을 알았다.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이래저래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한국에서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고 얼음이 퐁퐁 얼어붙는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일상 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없다. 제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대중교통은 거의 정상으로 운행된다. 이때는 즉시로 제설기가 투입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버스와 자동차가 길을 열어간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 은행에 가면 눈이 나빠 글씨를 잘 읽을 수 없거나 서식을 채울 수 없는 고객의 편의를 생각해 도수가 다른 여러 개의 안경이 비치돼 있다. 또 일부 전철역에는 반(半)공공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네다섯 개 정도의 서로 다른 핸드폰 형식에 따라 충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또한 어느 은행이나 사무소에 들러도 고객이 기다리면서 마실 수 있도록 인스턴트커피가 준비돼있다. 그리고 이민국의 전화서비스는 17개 언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시마다 이민자를 위한 행정서비스가 잘 돼 있어서 이곳에서 비자, 사무, 언어 등 각종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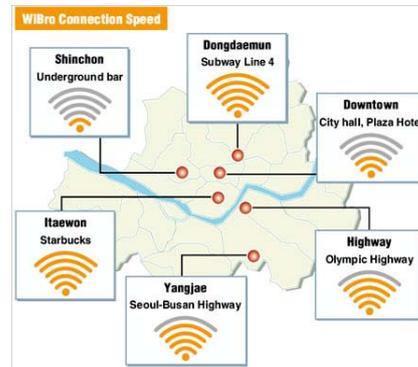
앞서 안경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것 역시 한국 생활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한국에서는 모든 게 ‘빨리, 빨리’ 처리된다. 생활리듬이 워낙 빠르게 돌아간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한번은 그간 한국어 공부를 어찌나 열심히 했던지 몇 주간이나 눈이 침침하고 잘 안보였는

데, 집 근처의 한 안경가게에 들어가 내 안경을 살펴보니 유리알이 꽤나 많이 긁혀 있었던 걸 알게 됐다. 아무튼 10여분쯤 후에 새 안경알로 갈아 끼고서 나왔다. 이게 바로 한국이다! 빠르기요 당연히 인터넷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연결이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다. 여기서는 모든 가게, 대형마트, 백화점, 사무실, 버스, 전철 할 것 없이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일이 매우 쉽다.

난 서울에 온 지 얼마 안 돼 핸드폰을 구입했다. 그런데 모든 메시지가 한국어로 나오는 바람에 몹시 당황했다. 하지만 누구의 도움 없이 쉽사리 영어 자판으로 바꿀 수 있었다. 그리고는 당연지사 전화 속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전화를 거는 목적으로만 사용했다. 이것 역시 한국어를 빨리 배우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후 전철에 올라 몇몇 젊은이의 도움을 받아 사진 찍는 방법도 익혔다. 하루는 서울에 있는 스페인대사관에서 마침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게 됐고, 이제는 내게 맞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내 시선을 끄는 모든 걸 사진에 담기 시작했다. 수많은 것을 사진에 담았다. 그것을 내 친구와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컴퓨터에 올리느냐가 문제였다. 그래서 스페인에 있는 내 동생이 조언해 준 대로 거리에 나가 집 근처의 많은 셀프서비스 가게 가운데 한 곳에 들러서는 처음으로 마주친 젊은 친구에게로 다가갔다. 사용법을 배우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이런 일련의 에피소드가 내게 한국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에 대해 전해줄 수 있는 애깃거리가 되었다. 그것은 한국인의 봉사정신과 우



대중교통도, 인터넷도 빠른 서울

정을 말해준다. 서울에서 첫 몇 주간을 지낼 때 전철과 버스 노선을 자주 찾곤 했는데 여러 차례나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하고 물어왔다.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누군가에게 다가가 물어보면 정확한 방향을 찾아주고자 애쓰는 모습이며, 때로는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직접 내 목적지까지 동행해 주기도 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내가 미국인이냐고 묻다가도 내가 영어로 대답하는 걸 듣고는 금세 그게 아니라는 걸 눈치 챈다.

수많은 일이 처음부터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줬다. 가게에 들어갈 때마다 고개를 숙여 손님을 맞는 거부터 해서 가게에서 내가 산 물건 값을 치르려고 할 때도 “내가 스페인에 가면 그때 당신이 돈을 내서”라고 말하며 대신 내주는 호의까지도 기억에 남는다.

하루는 버스에서 있었던 일이다-버스에서 일어난 에피소드가 참 많기도 하다. 내가 한 정거장에서 내려야 하는데 늦게서야 생각나 얼른 기사에게 알리려고 허둥대며 버튼을 찾고 있었다. 미리 하차 준비를 못한 것이다. 거기서 거기다 싶어 이제 포기하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려 하는데, 버스 안의 한 아주머니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기사 양반에게 귀띔해주었고, 나는 바로 그 자리서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하루는 비가 엄청 쏟아졌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돌변하는 날씨를 잘 알고 있다. 그날은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내게로 오더니만 자기 우산을 같이 쓰고 가자고 청했다.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도 내가 원하는 물건을 못 찾거나 한참 헤매게 될 때 내 핸드폰 사전에 나오는 단어를 매장 직원에게 보여주면 얼른 뛰어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다 주었다. 언제든 필요할 때면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는 모습이 었다. 또 한 번은 좀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영어로 써야할지 몰라 뽀빠이 흉내를 내니까 그 즉시 통하기도 했다.

한국 사람들이 내게 베푼 수많은 호의에 대해서는 이루 다 얘기할 수 없다. 길을 묻거나 전철역을 물을 때에도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그 장소

까지 동행해주곤 했다. 내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손사래를 쳐도 그저 어디 가느냐고 묻기만 한다.

때로는 내게 베푸는 온정이 좀 부담이 될 때도 있다. 한 번은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통로에서 뭔가를 먹고 있는 것이었다. 이따금씩 내가 쳐다보는 걸 어찌 알았는지 그들이 내게로 와서는 밀감을 건네는 것이었다. 그들 생각엔 내가 무척이나 배고팠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물론 난 감사표시를 하고 그걸 먹어치웠다.

서울은 활동이 매우 왕성한 도시다. 그러다보니 자칫 우리 몸이 녹초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는데, 실은 하루 종일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피곤을 모른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서울이 다분히 중독성이 강하다고나 할까…… 마치 김치처럼 서서히 빠져들게 만든다. 아, 김치! 여기서 한국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김치를 빼놓고 그냥 끝마칠 수는 없다. 한국 사람들은 어느 외국인이 김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모습을 보면 무척 놀라는 것 같다. 이들에게 있어 이 모든 것은 외국인이 새로운 낯선 나라에 적응하고 수용해나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는 것 같다. 하루는 내가 아주 맛깔스럽게 김치 먹고 있는 모습을 보던 한 친구의 숙모가 흡족해 하면서 “이제 한국사람 다 됐네!” 하는 것이었다.

이 글을 통해 모든 한국인에게 감사를 전하며, 비록 스페인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이들의 도움이 있어 내겐 너무도 가까운 나라가 되었다.

[신찬용 옮김]

하이메 아길로 파스트라나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스페인어 통번역학과 조교수.

신찬용 - 전북대학교 외래교수